

P-8 임상치관 확장술을 이용한 전치부 심미 보철

정철웅* · 김옥수 · 류명걸 · 주재익 · 진유남 · 정현주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1 치아의 수복처치시에는 수복물의 변연위치를 설정하기 전에 치질의 양, 주변치주조직, 그리고, 생물학적 폭경(biologic width)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경우 임상치관 확장술을 시행할 경우 치관/치근 비율, 분지부의 위치, 시술과정시 인접치의 치조골의 손상여부, 심미성 혹은 발음 문제, 악궁내의 치아 위치, 교합관계, 치아의 전략적 가치, 근관치치 및 post의 삽입시 문제점, 수복 후 구강위생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술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부종성 치은을 수축시키거나, 치은 절제술, 근단변위 판막술 및 골 절제술 등의 외과적 술식과 교정력을 이용해 치아를 치관측으로 이동시키는 치아 정출술(forced eruption)이 있다.

심미적으로 중요한 상악 전치부의 경우 외과적 술식은 술후 변연의 위치가 인접치아와 조화되지 못하므로 치아정출술이 더 선호되지만 경제적인 문제나 치료기간면에서 불리하고 다수 치아가 포함되고 고정원이 부족한 경우는 사용될 수 없다. 본 증례들에서는 상악 전치부에서 술후 심미성 및 적절한 보철물의 제작을 위해 각각의 치주상태에 따라 외과적 처치와 치아 정출술등을 이용한 임상 치관 확장술을 시행하였다.

증례 1: 심 ○ ○ (49세, 여자환자)

보철전 치주처치를 위해서 내원한 환자로 #12 #11 #21 #22 치아의 임상치관의 길이가 매우 짧고 근단병변이 존재하여 예후가 불량한 상태였으나 보철물의 지대치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초기 치주처치와 근관치료 후 골절제술을 동반한 근단 변위 판막술을 시행하여 생물학적 폭경을 확보하고 이를 지대치로 하여 Telescopic denture를 제작하였다.

증례 2: 나 ○ ○ (45세, 여자환자)

보철전 치주처치를 위해 의뢰된 환자로서 #13 #12 #11 #21 #22 부위에 이전에 장착된 보철물의 변연이 불규칙하고 생물학적 폭경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환자의 상순이 high lip line이어서 생물학적 폭경의 확보와 더불어 임상 치관의 길이를 증가시키기 위해 골절제술을 동반한 근단변위 판막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외과적 처치를 시행하고 약 6개월 동안 provisional restoration을 장착한 후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였다.

증례 3: 한 ○ ○ (57세, 여자환자)

교통사고 후 보철전 치주치료를 위해서 내원한 환자로 #11 치아의 생물학적 폭경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상악전치부의 심미성을 고려하여 가철성 장치를 이용한 치아정출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초기 치주처치 후 3주 동안 교정력을 가하여 변연치은 상방으로 2mm의 치질을 확보하고 임시 의치로 8주간 보정후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였다.

증례 4: 김 ○ ○ (50세, 여자환자)

보철전 임상치관 길이의 확보를 위해 보철과에서 의뢰된 환자로 #22 치아가 외과적 처치로 임상치관 확장술을 시행할 경우 인접치은과의 부조화가 예상되어 치아정출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초기 치주치치후 간단한 고정성 장치를 이용하여 3주 동안 교정력을 적용시켜 치은변연으로부터 3mm의 건전한 치질을 확보하고 6주동안 선결찰로 안정화시킨후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였다.

본 증례들에서 다수의 치아들이 치관확장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골절제술을 동반한 근단변위 판막술을 이용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었으며 한두개의 치아에서 치관확장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력을 이용한 치아정출술로 임상치관확장술을 시행하여 적절한 보철물의 유지를 얻을 수 있었고 치은의 변연이 인접 치주조직과 조화되어 심미성이 증진되었다.